

광주시, 금융취약계층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강화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채무상담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위와 ‘찾아가는 복합지원’
“자립·재기 발판 마련 적극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금융 취약계층의 고충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는 금융복지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금

영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들의 금융문제 해결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개소 이래 채무조정, 서민대출, 주거·복지 상담, 관련기관 연계 금융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890여건의 상담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광주광역시시는 센터 명칭을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단순 채무상담 기능을 넘어 심층상담, 서민대출,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개인채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상담 이후 관리도 지속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센터에 상주시켜 미소금융,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신청받아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전산망을

연계해 보증상담예약 등도 지원한다.

금융교육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광주고용복지+센터 등과 협업체 학생,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공공기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 홍보·정책 공유를 통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시는 30일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금융상담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는 복지상담을 지원하는 등 기관 간 양방향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채무·금융 관련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시청 1층 민원실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062-613-6700~3) 하거나, 광주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센터 명칭과 함께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자립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프랜차이즈 기업과 전북 산업 활성화

전북비빔밥 등 신메뉴 전국 출시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인 암샘김밥과 손잡고 전북을 활용한 프리미엄 김밥 등 신메뉴 4종을 29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북을 식재료로 식사메뉴를 개발해 대중화된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전북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암샘 김밥에서 출시 예정인 메뉴는 전북계란말이김밥·전북비빔밥·전북게살볶음밥·전북물쫄면 총 4종이다.

100% 전남의 살아있는 전북만을 사용하며, 소비자 선호에 맞춰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메뉴를 개발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전라남도 세계 김밥 페스티벌’에서 암샘김밥과 전남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으며, 이번 메뉴 출시는 협약에 따른 메뉴 개발과 제품 소비의 후속 조치다.

암샘김밥은 현재 전국 250여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미국에도 분식창업을 진행하는 등 대형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다.

이번 신메뉴 개발 및 출시로 연간 56톤의 전북 소비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전남도는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의 다양한 수산물을 재료로 가공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코로나 예방접종 6월까지 연장

65세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당부

전라남도는 30일까지였던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3년간(2022~2024년) 코로나19 발생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시작된 2024~2025 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전남도 예방접종률은 22일 현재 55.3%(전국 평균 47.4%)로 전국에서 가

장 높지만 여전히 고위험군 2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2024~2025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면역 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에너지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모

내달 23일까지 6개 사업 모집
총 9억7천만원 투입·실증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5월23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에너지산업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산업 기업지원사업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에너지특화기업사업과 지원사업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전기차충배터리 모듈팩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입주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총 사업비 9억7000만원

을 투입, 에너지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인증, 마케팅 등 기술기반 실증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사업별 개별 공모가 아닌 6개 세부사업을 통합해 공모함으로써 참여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없애고 다양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희망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월8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설명회를 연다.

사업 신청은 기업지원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정상아 기자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 비눗방울 놀이

어린이날을 일주일여 앞두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야외학습 나온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전남도, 해상풍력 ‘지반조사 기술 개발’ 공모 선정

5년간 국비 포함 189억 확보
“독자기술로 국내 시장 선점”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 및 기반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현대스틸산업, 남진건설 등 민간기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선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총 189억원을 확보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의 강한 바람

과 조류 등에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기초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지반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지반 분석을 통해 침하나 전도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 효율성과 유지관리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국내 서남해 연안은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지반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필요한 기술과 장비 부족으로 외국에 의존해 외화 유출과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 기반 구축과, 30GW 기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유 의파고 2m 이하 환경에서도 안정적 조사 기술 △물리탐사·현장시험·실내시험 통합분석 기술 △지반 정보 통합관리 방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지반조사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전주기 관리체계와 국제 표준 기반의 고품질 인증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을 이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실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 연계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국산화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시민 서포터즈 모집

내달 23일까지 3290명 모집
유니폼 등 응원용품·실비 지급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서포터즈 329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서포터즈는 ‘광주시민이 직접 참여해 세계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경기장 응원과 선수단 환영·환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회의 열기를 고조

시키고 광주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영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23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광역시, 자치구, 대회조직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시민 3020명, 대학생 240명, 통역이 가능한 시민 30명 등 총 3290명이다. 서포터즈는 대회 기간 1일당 3시간씩 활동하게 되며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등의 활동에 나선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응원 유니폼과 모자, 응원부채, 수건, 손수건 등 응원용품이 지급된다. 또 활동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소정의 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 뒤 6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7~8월 대한양궁협회 등과 협력해 국제매너, 경기규칙, 안전교육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회는 양궁 특성상 ‘선수 등장 시 박수, 격발 시 침묵, 점수 확인 후 환호’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성숙한 응원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확산할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